

미디어론

2019년 1학기 교재 가이드



교재 추천 원클릭 서비스

강의 정보를 남기시면 알맞은 교재를 찾아 전화와 메일을 드리고 책과 PPT 파일을 발송합니다. **서비스 신청하기**



반값교재 양심교재 판매

정가의 절반입니다. 내용은 책과 똑같습니다. 표지 대신 투명 비닐 커버고 DIY 스프링 제본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스프링을 끼웁니다. **킴복스 교재 공동구매 전용몰(7474001.com)**에서만 판매합니다.



대학 강의 전용 교재 보급판 출시, 굿클래스 시리즈

본문 내용과 판형은 변동 없습니다. 킴복스 교재를 사용하는 저자와 교강사를 위해 만든 저자 할인가에 준한 저렴한 특별판입니다. **킴복스 교재 공동구매 전용몰(7474001.com)**에서만 판매합니다.



강의를 풍부하게 만드는 강의용 **PPT** 무료 제공

교재를 검토하고 채택하는 강의자에게 제일 먼저 제공합니다.
PPT 목록 확인 PPT 신청



모든 교재 무료 검토

commbooks.com에서 본문 전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캐시를 신청해 주세요. **회원가입 바로가기** **열람 캐시 신청하기**



검토 교재 신청

한 과목당 한 권의 검토 교재를 증정합니다.

검토 교재 신청하기

<http://commbooks.com/굿클래스/>에서

위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하세요.

문의 전정욱 주간 02-3700-1273,

jwjuhn@commbooks.com

차례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갑니다.

신간 교재 5

베스트 교재 18

과목별 교재 21

미디어, 매스컴 개론 22 매스컴과 사회 24

미디어 사상 29 미디어법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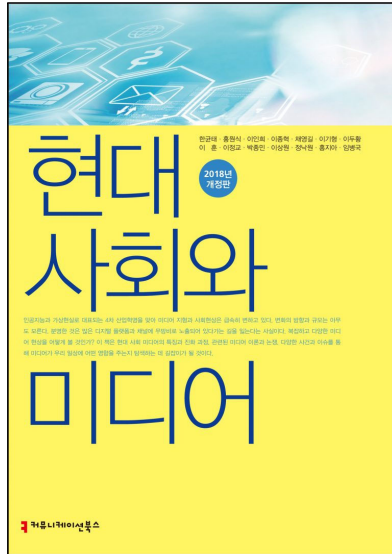
미디어 윤리 41 저작권법 46

미디어수용자 51

총서 교재 54



신간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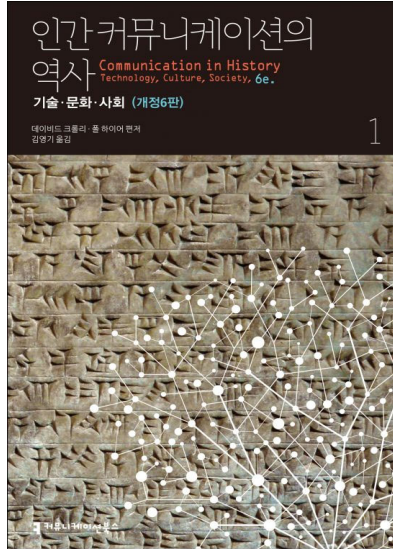


현대사회와 미디어(2018년 개정판)

미디어 입문 수업에 맞게 설계하고 스마트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2018년 개정판

- 모바일 미디어 같은 새로운 미디어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과 개념 보완
- 최근 미디어 산업의 통계와 사례 추가
- 각종 표와 이미지 최신 자료로 교체
- 새로운 연구 사례와 해외 미디어 사례 수록
- 디지털 미디어가 낳은 새로운 논쟁과 이슈 발굴

한권태 외, 크라운판, 564쪽, 25,000 원, 201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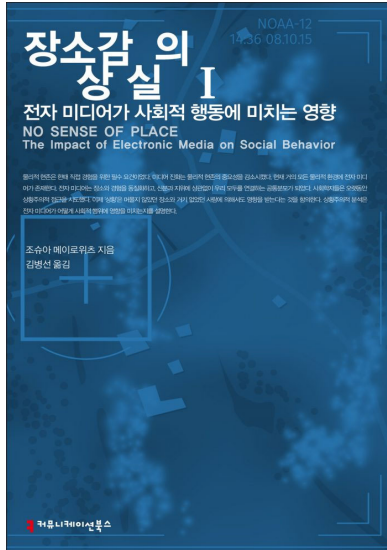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기술·문화· 사회(개정 6판) 1, 2권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술·문화·사회사를 다룬 텍스트는 무수히 많다. 이 책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텍스트들의 망망대해에서 건져낸 유일무이한 텍스트”다. 초판 이후 6번째 개정판을 낸 이 책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발전, 그리고 전망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8부와 41장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판은 논리적인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부분을 재구성

- 각 부 앞에는 해당 부에 포함된 장들의 내용 요약, 각 장에서 논의되는 주요 개념, 변곡점, 배경 지식 등을 좀 더 쉽게 이해
 - 근대 국가의 출현과 인쇄술의 역할, 텔레비전, 디지털 기술, 인터넷의 발달 과정과 영향력 포함
 - 녹음 기술, 방송, 특히 텔레비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발전 양상과 영향력을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과 연계해 논의
 - 리사 지텔먼, 조너선 스톤, 존 더럼 피터스, 헨리 쟁킨스, 마누엘 카스텔 등이 새로 저자로 참여
- 데이비드 크롤라플 하이어, 김영기, 사륙판, 1권 622쪽, 34800원, 2권 492쪽, 29,800원,
201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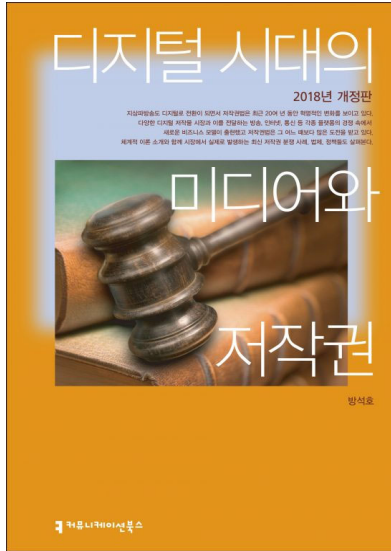


장소감의 상실 I, II ; 전자 미디어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물리적 현존은 한때 직접 경험의 필수 요건이었다. 미디어 진화는 물리적 현존의 중요성을 감소시켰다. 현재 거의 모든 물리적 환경에 전자 미디어가 존재한다. 이는 장소와 경험을 동질화하고,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연결시키는 공통분모가 되었다. 이 책은 미디어, 상황, 행동의 관계에 대한 일반 원칙, 사회적 역할의 넓은 범위에 걸친 '인쇄 상황'에서 '전자 상황'으로의 전환이 초래한 잠재적 효과를 탐색한다.

조슈아 메이로위츠, 김병선, 사륙판, I권 각 500쪽, 24,800원, II권 472쪽, 2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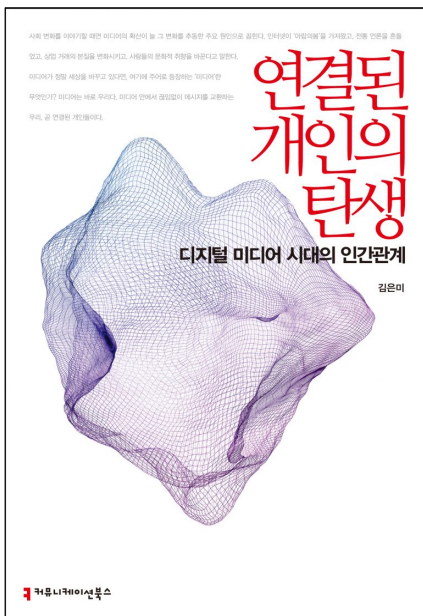
2018-06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2018년 개정판)

지상파방송도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저작권법은 최근 20여 년 동안 혁명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 시장과 이를 전달하는 방송, 인터넷, 통신 등 각종 플랫폼의 경쟁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했고 저작권법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체계적 이론 소개와 함께 시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최신 저작권 분쟁 사례, 법제, 정책들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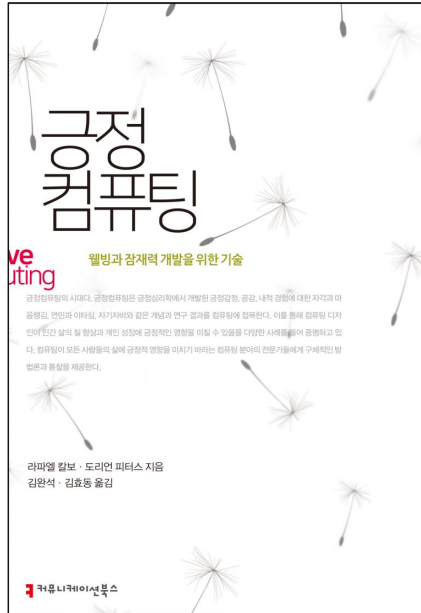
방석호, 신국판, 544쪽, 44,800원, 2018-09



연결된 개인의 탄생

이 책은 인터넷의 등장이나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이 정치, 경제 혹은 사회적으로 이리저리한 변화를 가져왔노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거시적 변화 근저에 있는 일상의 변화에 주목하려 한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미디어 체계가 어떻게 인간의 관계에, 우리 사회의 구성과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김은미 저, 신국판, 300쪽, 24,800원, 2018-02



긍정 컴퓨팅: 웰빙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기술

긍정컴퓨팅의 시대다. 긍정컴퓨팅은 긍정심리학에서 개발된 긍정감정, 공감, 내적 경험에 대한 자각과 마음챙김, 연민과 이타심, 자기자비와 같은 개념과 연구 결과를 컴퓨팅에 접목한다. 이를 통해 컴퓨팅 디자인이 인간 삶의 질 향상과 개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 컴퓨팅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바라는 컴퓨팅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방법론과 통찰을 제공한다.

라파엘 칼보·도리언 피터스 지, 김완석, 김효동 옮김, 사륙판, 568쪽, 37,800원, 20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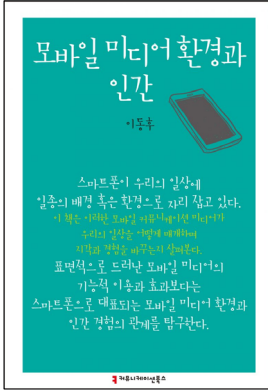
미디어 자유는 기본권이다

미디어의 특권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미디어’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미디어 자유의 범위는 블로거에게도 미치는가? 탐사보도와 순수한 타인의 사사(私事) 보도를 법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 하버마스과 포스트의 공적 담론을 토대로 미디어 자유를 명백한 기본권으로 정의
- 미디어 자유의 범위, 내용과 한계에 관한 이론적, 법리적 틀 제시
- 미디어 자유의 일반적 성격과 규범적 목표 제공
- 사법 해석과 실제 적용을 위한 실행과 검증의 법리 시스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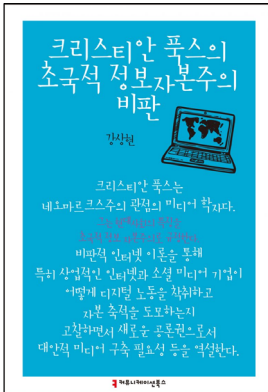
안 오스터, 한영학·이재진, 신국판, 446쪽, 30,000원, 2017-06



모바일 미디어 환경과 인간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에 일종의 배경 혹은 환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매개하며 지각과 경험을 바꾸는지 살펴본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바일 미디어의 기능적 이용과 효과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미디어 환경과 인간 경험의 관계를 탐구한다.

이동후, 사륙판, 138쪽, 9800원, 2018-05



크리스티안 폭스의 초국적 정보자본주의 비판

크리스티안 폭스는 네오마르크스주의 권력의 미디어 학자다. 그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초국적 정보자본주의로 규정한다. 비판적 인터넷 이론을 통해 특히 상업적인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기업이 어떻게 디지털 노동을 착취하고 자본 축적을 도모하는지 고찰하면서 새로운 공론권으로서 대안적 미디어 구축 필요성 등을 역설한다.

강상현, 사륙판, 124쪽, 9800원, 2018-04



디지털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에 관한 한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간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더없이 소중하게 여기고, 필수 권리로 간주하고, 자유와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여긴다. 그런가 하면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만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소셜 미디어로 증계하기 바쁘다. 사물인터넷, 드론, 바이오메트릭스, 커넥티드카, 클라우드 같은 신기술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보다는 수집과 공유, 공개를 더 부추긴다. 프라이버시는 이제 가망이 없는 가치일까? “프라이버시는 죽었다”라는 선언은 과연 유효한 것일까?
김상현, 사륙판, 142쪽, 9800원, 2018-03



디지털 미디어 애널리틱스

맞춤형 디지털 미디어 애널리틱스가 성공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모바일 미디어 애널리틱스는 비즈니스 성공의 필수 요인으로 여겨진다. 인터넷에 저장된 데이터 분석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디지털 미디어 애널리틱스는 사업의 향후 전망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기업은 이제 애널리틱스를 하지 않고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없게 되었다.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해 소비자의 특성을 알면 이들에게 표적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애널리틱스의 이론, 개념, 도구, 소비자, 수용자, PR, 공공서비스, 소셜 미디어 등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한다.

강석, 사륙판, 114쪽, 9800원, 20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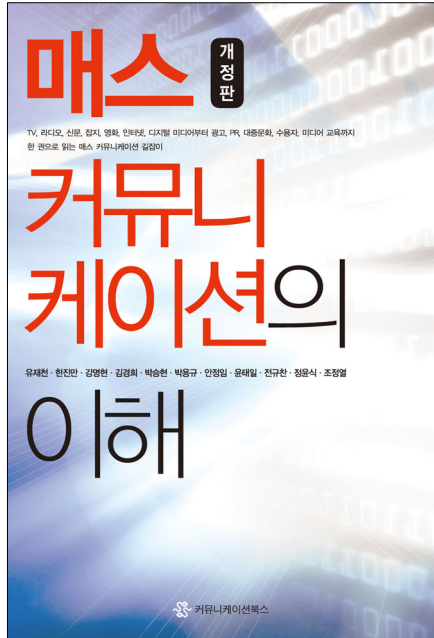


공유 경제

정보 통신 기술 발달과 초연결 사회를 향한 변화 속에서 공유 경제가 새로운 경제 형태로 등장했다. 자본주의 경제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지만 소유를 기반으로 한 기존 경제를 보완하는 저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는 차량이나 숙박 공유 수준에 머물지 않고 공공 영역 등 더욱 다양한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창조적 파괴의 전형적인 사례로 사회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유의 가치는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공유 사회의 길을 열고 있다. 공유 가치는 사회 양극화, 민주주의 퇴조, 신뢰 상실 등 여러 사회적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김대호, 사륙판, 134쪽, 9800원, 2018-01

베스트 교재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 커뮤니케이션 비전공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교양과목 기획 교재
- TV, 라디오,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광고, PR, 대중문화, 수용자 등 분야별 접근
-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법 개정 등 달라진 미디어 현실 반영
- 다양한 미디어 이슈가 한눈에 보이는 도표와 사례

유재천 외, 신국판, 374쪽, 15,000원, 2010-03

“ 1학년 매스커뮤니케이션개론 교재로 쓴다. 쉽게 읽을 수 있어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다. 16주 강의용으로 분량도 딱 맞다. 내용이 평이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완하면 좋겠다.
호원대학교 방송연예학부 백선기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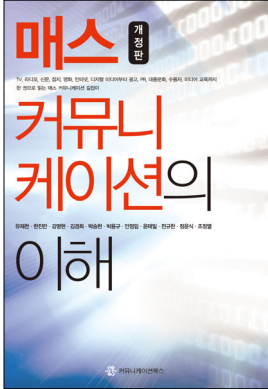
“ 특정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입문서로 적절하다. 1학년 교재로 무난한 텍스트를 찾는 교강사들에게 추천한다. 특징이 없는 것이 약점이다.
동아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하승태 교수

교재 채택 학교

강원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극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과목별 교재

미디어, 매스컴 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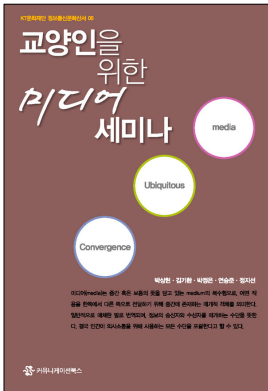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이해(2010년 개정판)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다. 이 책을 펴내게 된 동기는 바로 그 때문이다. 저지들은 이 책을 대학 교재로 쓸 목적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일반인들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데도 길잡이가 되도록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다.

유재천·한진만·강명현·김경희·박승현·박용규·안정임·윤태일·전규찬·정윤식·조정열, 신국판, 374쪽, 15,000원, 2010-03



교양인을 위한 미디어 세미나

유비쿼터스 미디어 시대를 맞아 미디어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최신 정보기술과 사회 변화의 흐름을 조망한다. 미디어의 진화가 가져온 변화를 살피면서 그 역기능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바람직한 태도를 모색한다.

박상현·김기환·박정은·연승준·정지선, 신국판, 196쪽, 16,000원, 2008-07



매스미디어와 정보사회(개정판) 보급판

미디어의 존재 양식과 사회적 기능, 나아가 21세기의 총아로 등장한 뉴미디어의 새 문법까지 쉽게 설명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를 읽고 적응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관련 전공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미디어 세계의 논점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했다.

배규한·류춘렬·이창현·김도연·손영준, 사륙배판, 22,000원, 369쪽, 20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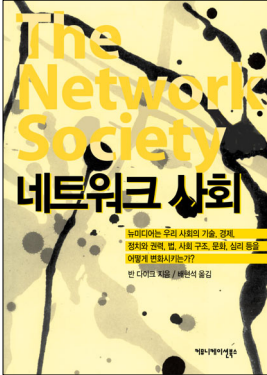


미디어의 미래

뉴미디어의 탄생과 올드 미디어의 진화를 거둬하며 미디어 생태계는 날로 변해간다. 변화무쌍한 미디어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을까? 11명의 미디어 연구자들이 그 해답을 제시한다. 미디어 산업과 기술의 미래, 인터넷·뉴스·게임·라디오 등의 매체 진화, 미디어 문화의 발전 방향 등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김대호·김영주·안치득·심용운·김민영·김사승·전경란·이종식·최향섭·심미선·김예란, 신국판, 258쪽, 20,000원, 2008-08

매스컴과 사회



네트워크 사회

텔레커뮤니케이션, 데이터커뮤니케이션, 매스커뮤니케이션 등 네트워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개관한 책이다. 기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심리의 측면에서 뉴미디어를 분석하고, 뉴미디어가 공공정책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네트워크 사회를 고찰하고 있다.

반 다이크, 배현석, 사륙배판 변형, 401쪽, 35,000원, 2002-02



디지털 게임과 현대사회 보급판

현대사회에서 게임의 위상은? 게임 세대는 게임을 통해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느낀다. 그것이 게임 교육이 필요한 이유인가? 게임은 사회적 영향도, 산업 규모도 크다. 현대사회에서 게임은 결정적 미디어다. 그래서 게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용자 교육이 중요하다. 이 책에 게임 이해와 활용법이 있는가? 게임 이해, 제작, 산업, 사회 4부 12장으로 쉽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입문 교재다. 제작 실무와 이론 이슈, 모델까지 쉽게 익힌다.

노기영이영수, 신국판, 412쪽, 23,000원, 2015-02



모바일 미디어와 새로운 인간관계 네트워크의 출현

휴대전화는 인간의 유대를 강화한다. 저자는 휴대전화로 매개 되는 상호작용과 면대면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휴대전화가 다양한 의례(ritual)를 활용한다는 것을 밝혀낸다. 에밀 뒤르켐, 어빙 고프먼, 랜덜 콜린스 등 저명한 사회학자의 논리를 인용해 휴대전화가 우리의 사회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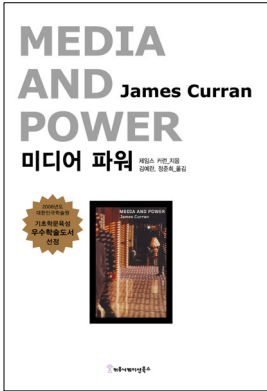
리치 링, 배진한, 신국판, 356쪽, 28,000원, 2009-09



미디어 공공성

전국의 언론학자 203명이 참여한 미디어공공성포럼이 미디어 공공성의 개념, 이론, 사례를 논의한다.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미디어 산업과 학계에서 어렵게 통용되는 개념을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미디어 공공성이 미디어 철학, 미디어 거버넌스, 제도, 시장, 뉴미디어, 수용자, 해외 미디어 정책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미디어공공성포럼, 신국판, 352쪽, 22,000원, 2009-12



미디어 파워(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미디어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미디어는 과연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가? 실제로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미디어가 사회 속에서 권력과 맺고 있는 관계는 어떠한가? 저서에 담긴 일련의 획기적인 논문을 통해 제임스 커런은 현재까지 주어진 여러 가지 대답을 검토한 후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개진한다.

제임스 커런, 김예란·정준희, 신국판, 457쪽, 33,000원, 2005-09



방송, 권력과 대중의 커뮤니케이션 보급판

방송을 기술, 산업, 조직, 내용, 제도, 방송의 미래로 나누어 설명한다. 신문·방송 겸영이 방송의 공익성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지 명확하게 설명한다. 복잡한 방송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다.

이효성, 신국판, 278쪽, 20,000원, 2009-05



사회 정보학

정보기술의 사회적 의미와 인간적 활용에 관한 입문서다. 저자들은 사회정보학을 개념 짓고, 정보기술이 특정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설계(design), 구현(implementation), 사용(use)되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따라서 정보기술 관련 분야에서 일하거나 연구 하는 사람들에게 전략, 분석기술, 활용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롭 클링·하워드 로젠바움·스티브 소이어, 문용갑, 신국판, 240쪽, 17,000원, 200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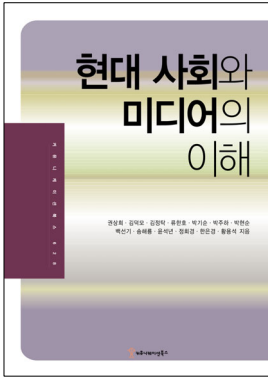


현대사회와 미디어(2017년 개정판)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입문서.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매스 미디어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관련 서적들과 차별화하려고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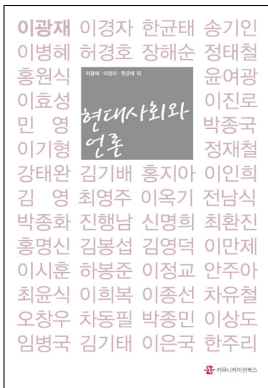
한군태· 흥원식· 이인희· 이종혁· 채영길· 이기형· 이두황· 이훈· 이정교· 박종민· 이상원· 정낙원· 홍지아· 임병국, 크라운판, 25,000 원, 2018-07



현대 사회와 미디어의 이해

인간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길잡이가 되어줄 연구이론서.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미디어와 사회’, ‘미디어의 이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첫 발을 들여놓는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현대 사회와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권상희·김덕모·김정탁·류한호·박기순·박주하·박현순·백선기·송해룡·윤석년·정회경·한은경·황용석,
사륙배판, 315쪽, 18,000원, 200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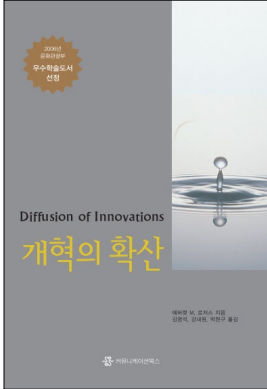


현대사회와 언론

언론학을 전공한 40여 명이 넘는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노력에 의해 집대성된 성과물로 언론학의 정석이라 할 만하다. 각 언론매체의 성격과 역사, 특징들을 비롯한 개념의 정리부터 언론과 정치·경제, 문화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 디지털시대의 언론과 저널리즘의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을 요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이광재 외, 크라운판, 630쪽, 25,000원, 2006-09

미디어 사상



개혁의 확산(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정책입안자와 정책연구자들이 정독해야할 고전 필독서. 개혁을 도입하려 기획하는 모든 이들에게 현명한 교훈과 지혜를 주는 책. 로저스 교수는 개혁 확산 연구 그 자체라고 평가받는다. 에버렛 로저스, 김영석·강내원·박현구, 신국판, 578쪽, 29,000원, 2005-09



근대 유럽의 인쇄 미디어

혁명(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근대 초기 유럽의 인쇄 문화가 인간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통찰한 위대한 고전이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근대과학의 부흥에 인쇄 혁명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과정과 결과를 세밀하게 추적한다. 유럽의 사회문화사를 체계적으로 고찰해 미디어가 사회 변화의 주요한 동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방대한 삽화와 주석은 책의 가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엘리자베스 L. 아이젠슈타인, 전영표, 신국판, 352쪽, 29,000원, 2008-08



기계신부: 산업사회 인간의 민속설화

산업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인간이 기계를 숭배하는 사회다. 기계 숭배가 뭐냐? 대중이 표준화, 획일화, 능률과 같은 기계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추종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가? 광고와 오락 산업의 메시지가 은밀하게 기계 숭배를 전파하기 때문이다. 20세기 가장 탁월한 문명 비평가 마셜 매클루언이 테크놀로지와 상업주의의 결합, 대중매체의 숨은 작용을 진단한다. 대중문화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미디어 효과를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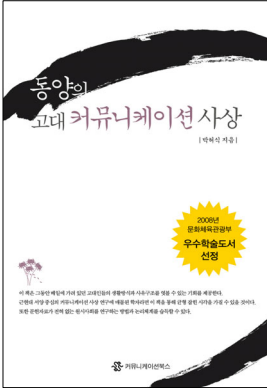
허버트 마셜 매클루언, 박정순, 국배변형판, 244쪽, 28,000원, 2015-05



대항공론과 대안언론

대안언론의 한국형 모델을 찾는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하버 마스가 개념화한 부르주아 공론영역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개념의 의미 변화를 알아본다. 2장에서는 대안언론의 모태인 대항공론 영역 이론의 전개를 탐색한다. 3장에서는 신사회운동을 대항공론 영역과 연계하여 고찰한다. 또한 인쇄, 방송, 인터넷을 통한 대안언론 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박춘서, 신국판, 212쪽, 18,000원, 200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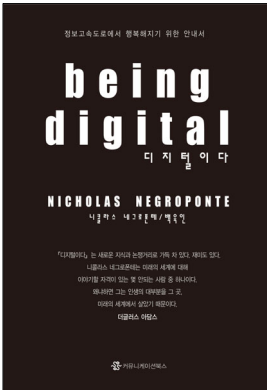


동양의 고대 커뮤니케이션 사상

동양의 고대 커뮤니케이션 사상을 고찰하여 커뮤니케이션 사상 연구에 새 지평을 연 역작. 고대의 신화적 커뮤니케이션부터 붓다, 공자, 노자, 장자, 혜시, 공손룡, 별목 등 옛 성인의 커뮤니케이션 사상까지 모든 사유세계를 총망라했다. 고대인의 생활방식과 사유구조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근현대 서양 중심의 시각을 벗어난 커뮤니케이션 연구 방법과 논리체계도 습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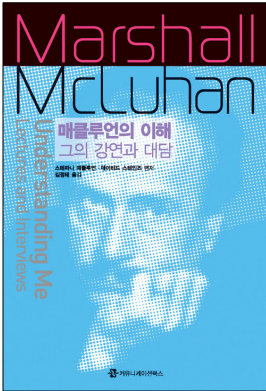
박희식, 신국판, 510쪽, 28,000원, 2008-02



디지털이다

미국 전자, 컴퓨터, 미디어계의 지도자가 쓴 디지털 바이블.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 정보화의 핵심을 이해하게 하는 책이다. 멀티미디어 창시자인 저자가 “멀티미디어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며 디지털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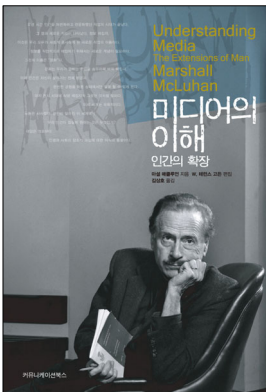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백옥인, 신국판, 238쪽, 9,000원, 1995-10



매클루언의 이해

마셜 매클루언의 강연과 대담 내용을 모은 녹취록. 1959년부터 1979년까지 그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20년 동안의 자료를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최초로 출간된 이 자료는 매클루언의 학문적 진보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매클루언의 생각과 사상, 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매클루언의 새로운 면모도 발견할 수 있다.

스테파니 매클루언-데이비드 스테인즈, 김정태, 신국판, 496쪽, 18,000원, 200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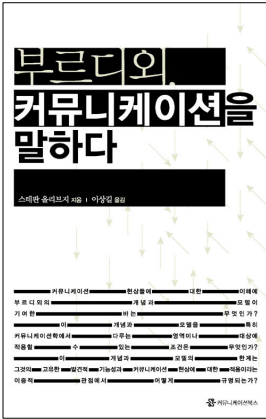


미디어의 이해(한국언론학회 희관언론상)



전문가의 번역과 편집으로 새로이 출간된 『미디어의 이해』 결정판. 이 판본의 특징은 편집자가 각 장마다 간략한 설명을 붙인 것이다. 부록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미디어의 이해』의 바탕이 된 보고서와 용어 사전, 참고문헌, 주제·인명 색인, 매클루언의 저술 목록이 담겨 있다. 번역자 김상호 교수는 470개의 역주를 달았다. 그의 해설은 미디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허버트 마셜 매클루언, 김상호, 신국판, 32,000원, 778쪽, 201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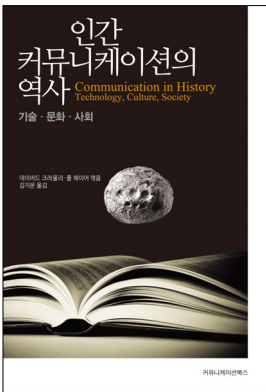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부르디외 사회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의 접점을 보여준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분석에서 장과 아비투스 개념이 가지는 유용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부르디외가 내세운 학문의 자기성찰성을 커뮤니케이션학에도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한다. 부록으로 역자가 부르

디외의 수많은 저작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전공자에게 필요한 문헌만 정리 소개했고, 부르디외 사회학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용어 설명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스테판 올리브지, 이상길, 신국판 변형, 212쪽, 13,000원, 2007-11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기술 문화 사회



이니스, 옹, 매클루언, 아이젠스타인의 고전적 연구부터 멈포드, 포스트먼, 볼터와 그루신의 현대적 비평까지 최고의 석학 5명의 글을 묶었다. 시대와 분야를 뛰어넘는 폭넓은 논제들은 인류 역사와 커뮤니케이션의 상관관계를 보다 광범위하고 흥미진진하게 보여 준다. 5판에서는 TV, 디지털 기술, 인터넷, 사이버스페이스 등 주요 미디어의 발전상을 좀 더 충실히 다루었다.

데이비드 크라우리·폴 헤이어, 김지운, 신국판, 780쪽, 35,000원, 2012-01



제국과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미디어가 인간의 의식과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철학적 물음에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이니스의 가장 중요한 책. 이 책에서 이니스는 문자 문화 이전의 구술 전통으로부터 다양한 글쓰기, 인쇄 형태를 거쳐 20세기 중반의 전자 미디어까지 인류 문화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이니스가 없었다면 마셜 매클루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처럼, 노엄 촘스키, 닐 포스트먼, 로버트 맥체스니 등 수많은 석학에게 영감을 제공한 명저이며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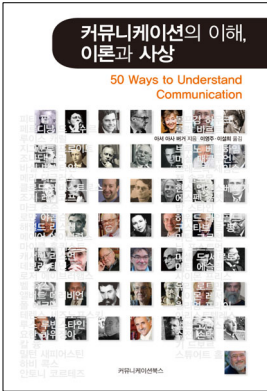
해럴드 A. 이니스, 김문정, 신국판, 329쪽, 19,000원, 2008-01



커뮤니케이션 사상사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에서 시작해 홉스의 여론관, 밀턴의 언론 자유사상, 밀의 자유주의 언론관과 흄의 커뮤니케이션관, 레닌의 선전자·선동자·조직자로서의 언론관, 그리고 안재홍의 민족주의 언론사상까지 베버의 방법론에 충실해 커뮤니케이션 사상의 흐름을 조망한 연구논문들을 모았다.

조맹기, 신국판, 377쪽, 15,000원, 20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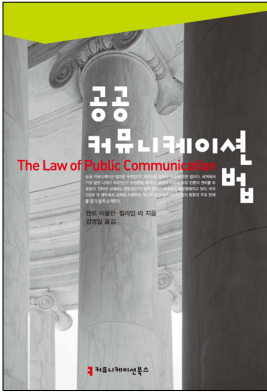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이론과 사상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해 프로이트, 융, 포스트먼을 지나 매클루언에 이르는 지적 여행. 아서 버거는 저명한 커뮤니케이션 사상가들의 핵심적인 글을 뽑아 명쾌한 해석을 덧붙였다. 난해한 개념과 이론을 친절한 설명과 예시로 풀어내 사전 지식이 부족한 독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문화에 대한 훌륭한 개관이자 최고의 사상과 접할 수 있는 입문서다.

아서 아사 버거, 이영주·이설희, 신국판, 304쪽, 23,000원,
2012-05

미디어법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

공공 커뮤니케이션 법이란 무엇인가?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미국인가?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와 자유 언론의 권리를 보호한다. 인터넷 시대에도 변함없는가? 법적 문제가 모호하고 불분명해지고 있다. 미국 100여 개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최고의 교과서가 미디어 법의 동향과 주요 판례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켄트 미들턴·윌리엄 리, 강명일, 신국판, 1298쪽, 58,000원, 2014-12



디지털 방송 법제론

디지털 방송의 기술적·사회문화적 의미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 디지털 격변기에 나타난 방송의 변화를 살펴 디지털 방송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국가의 규제 기관, 디지털 시장, 방송산업의 동향을 정리해 국내에 적합한 규제 방안과 시청자 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방송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정비해야 할 10가지 법적 과제도 제시했다.

강상현·김국진·정용준·황근, 신국판, 426쪽, 28,000원, 200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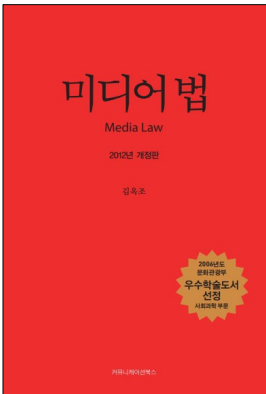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2013년 개정 3판)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방송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012년 방송법 개정은 물론 초판 발행 이후 4차례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새로운 시스템, 뉴미디어 기술에 따른 다양한 쟁점을 알 수 있다. 부록에는 최신 방송관계법 조문을 실었다.

김정태, 신국판, 576쪽, 32,000원, 201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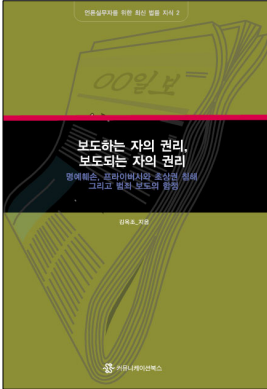


미디어 법(2012년 개정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2012년 1월 일부 개정된 미디어 법을 반영한 최신 개정판이다. 현직 언론인이나 예비 언론인이 알아야 할 언론 관련 법률과 수많은 국내외 사례·판례를 방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한다. 또한 우리와 언론 관련 제도나 관행이 아주 흡사한 일본 언론 현장의 사례와 판례도 충실히 소개한다. 저자의 충실한 주석은 이 책의 큰 특징으로, 서술에 신뢰를 높임은 물론 독자들의 깊은 이해를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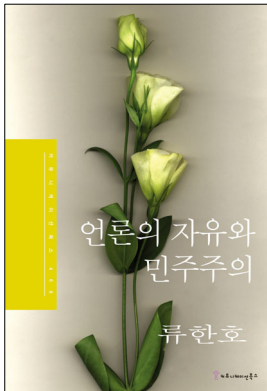
김옥조, 신국판, 1,128쪽, 45,000원, 2012-03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와 초상권 침해 범죄 보도의 함정. 어디까지가 알 권리이고 어디서부터가 취재원의 권리인가? 취재와 보도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법규 설명과 풍부한 현장 사례를 담았다.

김옥조, 신국판, 413쪽, 17,500원, 2006-06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사회세력들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일, 즉 편집의 독립성과 자율성 문제를 깊이 천착하고 있으며, 언론자유 신장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접근의 당위성을 도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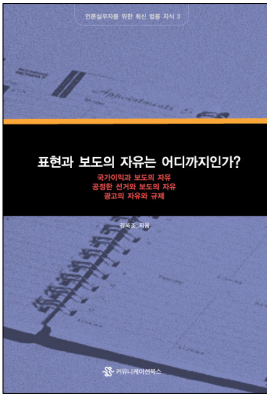
류한호, 신국판, 364쪽, 25,000원, 2004-05



여론과 법, 정의의 다툼 반값

소크라테스 재판에서 O. J. 심슨 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뿐인 정의를 둘러싼 여론과 법의 갈등과 소통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시대를 맞아 여론의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 변호사 켄들 코피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중심으로 여론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올바른 정의 실현을 위해 법률 재판과 여론 재판 간 소통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켄들 코피, 권오창, 신국판, 546쪽, 28,000원, 2013-06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급변은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의 움직임이 낳았다. 성숙해진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보도하는 자의 권리 못지않게 보도되는 자의 권리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 실무자들이 언론의 법률적 이해를 깊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이익과 보도의 자유, 선거 표현 행위와 후보자의 인격권, 부당 위법 광고의 유형을 담고 있다.

김옥조, 신국판, 290쪽, 12,000원, 2006-06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보급판 반값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치와 이해관계의 타협으로 태어난 미디어 정책의 핵심 줄기다. 정책은 어떻게 실현되나? 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규칙,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책의 신뢰성은 어떻게 인정받나? 정책 이념과 목표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조율하고 합의해야 한다. 저자는 20여 년의 현장 경험을 통해 각각의 정책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내세우는 상반된 주장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폈다.

김재철, 신국판, 1044쪽, 48,000원, 20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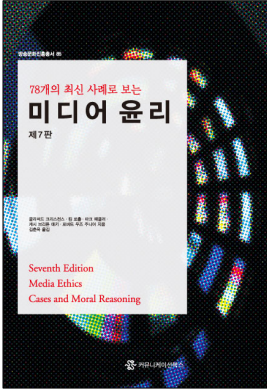
미디어 윤리



Blind Spots, 이기적 윤리

스스로 윤리적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의 실제 점수는 얼마나 될까? 생각만큼 높지 않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것일까?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실제 모습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윤리의 사각지대(Blind Spots)를 어떻게 일깨울까? 각종 딜레마에 직면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가능하다. 행동윤리학에 관심을 기울여 온 두 저자가 금융시장 붕괴, 엔론의 몰락, 포드 핀토자동차 결함, 챌린저 우주왕복선 참사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함으로써 해결책을 제시한다.

맥스 베이저만·앤 텐브룬셀, 김영욱·김희라, 신국판, 282쪽, 18,000원, 2014-10



78개의 최신 사례로 보는 미디어 윤리

미디어 윤리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클리퍼드 크리스천스 교수가 분석한 뉴스, 광고, PR, 엔터테인먼트의 윤리. 78개의 현장 사례를 낱알이 분석하여, 미국 미디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미디어가 갈 길을 제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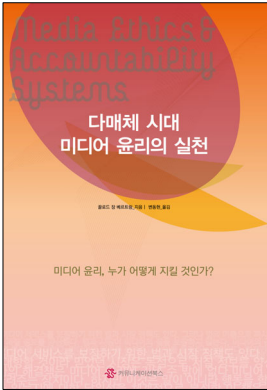
클리퍼드 크리스천스·김 로출·마크 패클러·캐시 브리튼
매카·로버트우즈 주니어, 김춘옥, 신국판, 489쪽, 28,000원,
2007-09



글로벌 시대의 언론윤리

혁명적이라 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경제·문화의 급속한 세계화, 그리고 정치 민주주의 전진대세는 보편 적용 가능한 언론 윤리규범을 요청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사태 진전을 반영하는 동시에 기여하게 될 언론윤리 강령의 원천 소재로서 보편가치를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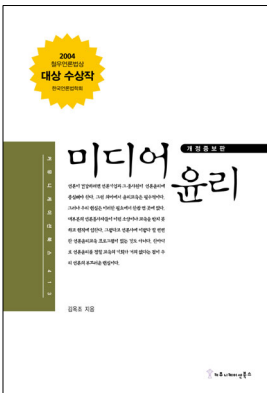
김지운, 신국판, 280쪽, 21,000원, 2004-02



다매체 시대 미디어 윤리의 실천

미디어 윤리의 실천적인 대안으로 베르트랑은 MAS(미디어책무제도: Media Accountability Systems)를 제시한다. 미디어가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회 전체가 도덕적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세계 각국의 MAS의 실천 사례를 검토한 이 책은 언론인, 시민단체, 학자들이 언론 윤리의 실천 수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풍부한 근거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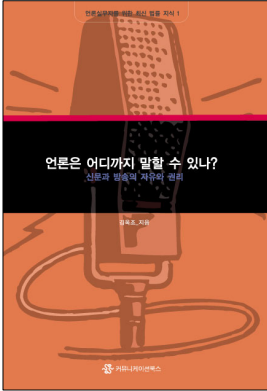
폴로드 장 베르트랑, 변동현, 신국판, 196쪽, 14,000원, 2006-08



미디어 윤리(개정판) 보급판 반값

기자·프로듀서 등 현직 언론인과 언론지망자들이 직업윤리로서 알아야 할 덕목과 지식을 망라했다. 그리고 수용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상식과 특히 언론피해 대비책도 담았다. 언론 중재제도, 신문윤리위원회, 범죄보도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다룬다.

김옥조, 신국판, 580쪽, 28,000원, 20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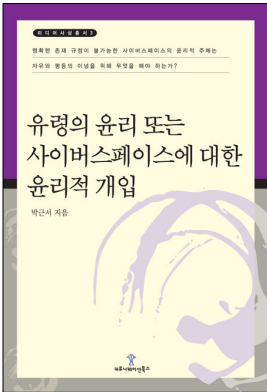


언론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현장에서 힘이 되는 언론인의 사상적 무기, 신문과 방송의 자유와 권리.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는 무엇이 다른가?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신문과 방송은 무엇을 말하고 말할 수 없는가? 진정한 프로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첫걸음. 언론 역사의 수많은 사례에서

배우고 또 배운다.

김옥조, 신국판, 337쪽, 16,500원, 2006-06



유령의 윤리 또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윤리적 개입

이 책은 사이버 공간을 구원할 윤리 주체의 문제와 윤리적 담론을 제기한다. 저자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영화 <론머맨>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영화 <매트릭스> 등 네트워크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소재를 사용한다. 여기에 현실 상황을 엮어서 흥미롭게 논지를 전개한다. 드물게 읽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전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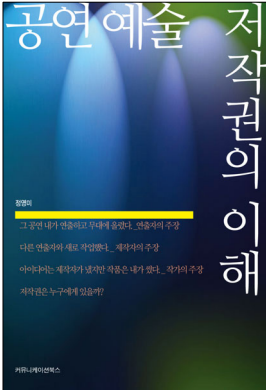
박근서, 신국판, 111쪽, 12,000원, 2005-11



정보 윤리의 이해와 실천

정보 윤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향점을 다룬 책이다. 모두 네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와 2부에서는 정보 윤리에 대한 배경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다. 3부는 다양한 정보 윤리의 적용 사례를 통해 정보 윤리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4부는 정보 윤리에 대한 실천단계의 올바른 정보 윤리를 지향하기 위한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지식, 태도, 실천의 단계로 이루어져 정보윤리를 얕의 차원뿐만 아니라 실천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현철·강장묵·최두진·김봉섭·임상수·박정호, 사륙배판, 425쪽, 18,000원, 20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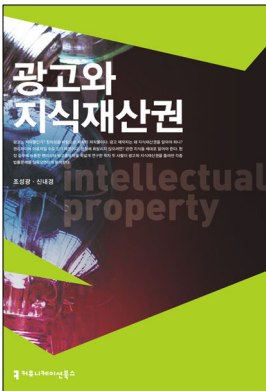
저작권법



공연예술 저작권의 이해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연 예술의 저작권에 대해 속 시원히 설명한 자료가 없다. 이에 연극학을 전공한 저자가 직접 나섰다. 저자는 공연 예술의 저작권 개념과 범주, 관련 용어를 상세히 풀이하고, 국내외 저작권 판례를 소개한다. 특히 제작자와 연출자, 연출자와 극작가, 연출자와 연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 과정을 소개하고, 각각에 대한 법 해석을 설명해 저작권, 실연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상표권 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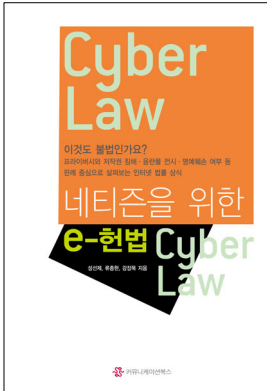
정영미, 신국판, 254쪽, 23000원, 2011-10



광고와 지식 재산권

광고는 저작물인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저작물이다. 광고 제작자는 왜 지식재산권을 알아야 하나? 권리자이며 이용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관련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현장 실무에 능통한 변리사와 광고홍보학을 폭넓게 연구한 학자 두 사람이 광고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법률문제를 일목요연하게 분석한다.

조성광·신내경, 신국판, 224쪽, 19,500원, 2014-03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 (2009년 개정판)

컴퓨터학과 교수, 법학과 교수, 현직 언론인이 만나 음란, 프라이버시, 저작권, 명예 훼손 등 네티즌이 꼭 알아야 할 인터넷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최근 이슈화된 판례를 중심으로 쉽게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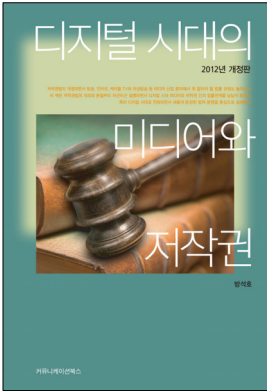
성선제·류종현·강장묵, 신국판, 268쪽, 20,000원, 2009-06



뉴스저작권

뉴스는 언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가? 뉴스저작물로 인정될 때다. 뉴스저작물의 조건은 무엇인가? 소재의 선택과 배열, 용어, 어투, 문장 표현에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뉴스저작권 보호의 효과는? 더 질 좋은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 미디어 저작권 전문가인 저자가 뉴스저작권 관련법과 국내외 판례를 정리했다. 디지털 시대의 뉴스저작권 쟁점이 일목요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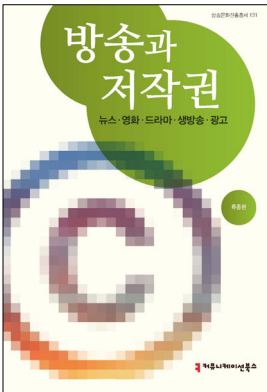
류종현, 신국판, 334쪽, 28,000원, 2015-01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2012년 개정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방송, 인터넷,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규정도 늘어났다. 이 책은 저작권법의 의의와 본질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디지털 시대 미디어와 저작권 간의 법률관계를 낱낱이 밝힌다. 특히 외주제작사와 저작권 분배 문제,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 인터넷방송과 광고 등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법적 분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방석호, 신국판, 498쪽, 42,000원, 2012-09



방송과 저작권

뉴스 기사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영화 장면이 자료로 담긴 프로그램을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팔 때 문제가 되는가?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스포츠 중계 화면에도 저작권이 있는가? 종합 저작물인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은 복잡하다. 방송과 저작권 문제에 전문가가 명쾌하게 답한다. 뉴스, 영화, 드라마, 생방송, 광고 등 방송 콘텐츠의 복잡한 저작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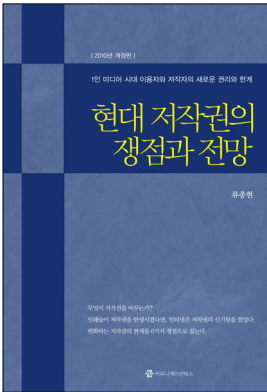
류종현, 신국판, 374쪽, 32000원, 2013-02



웹 2.0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할 소지와 저작권 보호의 본질 자체를 외면한 채 무단 이용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무차별적인 상술이 난무하고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배려에 바탕을 둔 문화적 판단이야말로 저작권 분쟁에 도입되어야 할 절대 기준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정비해야 할 것인 무엇인지 분야별로 살피고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제도권 교육에서도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가르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행 저작권법에서 특히 문화산업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안을 중심으로 100가지 주제를 선정했다.

김기태, 신국판, 264쪽, 15000원, 2008-03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2010년 개정판)

1인 1미디어 시대, 넘쳐나는 정보를 이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로 인한 각종 분쟁과 소송 사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저작자나 이용자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 변화를 설명하고, 저작권을 변화시킨 6가지 쟁점을 짚는다. 또한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리에 관해 알아보고 저작권법의 발전 방향을 살핀다.

류종현, 신국판, 378쪽, 24,000원, 20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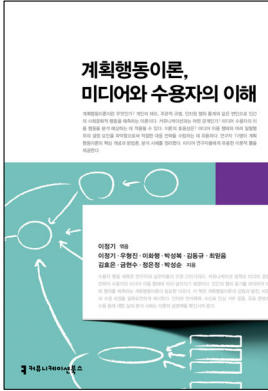


이러닝과 저작권법

이러닝 콘텐츠에 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시해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나? 빌 게이츠 같은 유명인의 사진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토익 문제를 변형해 인터넷 강의를 제작한다면?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저자가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다. 이러닝의 개념과 유형, 사례는 물론 관련 법제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김윤명, 신국판, 231쪽, 19000원, 201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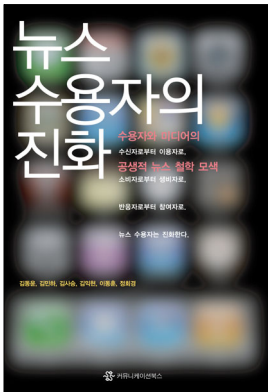
미디어수용자



계획행동이론, 미디어와 수용자의 이해

계획행동이론이란 무엇인가? 개인의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 통제 변인으로 인간의 사회문화적 행동을 예측하는 이론이다. 커뮤니케이션과는 어떤 관계인가? 미디어 수용자의 이용 행동을 분석·예상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이론의 효용성은? 미디어 이용 행태와 여러 일탈행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연구자 10명이 계획행동이론의 핵심 개념과 방법론, 분석 사례를 정리했다. 미디어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정기·우형진·이화행·박성복·김동규·최민음·김효은·금현수·정은정·박성순, 신국판, 484쪽, 31,000원, 2013-11



뉴스 수용자의 진화

수신자로부터 이용자, 소비자로부터 소비자, 반응자로부터 참여자로. 뉴스 수용자는 진화한다. 생산자와 수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뉴스 프로슈머 시대에, 저널리즘의 변화와 수용자의 진화 모습을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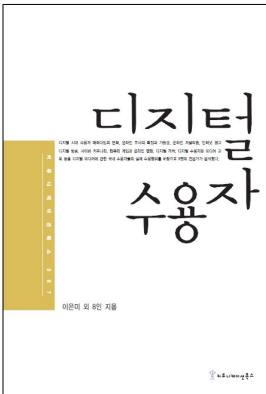
김동윤·김민하·김사승·김익현·이동훈·정희경, 신국판, 243쪽, 21,000원, 2010-06



디지털 마니아와 포비아

한국방송학회 수용자연구 분과의 전문가들이 세계 디지털 기
회 지수 1위인 한국의 디지털 수용자를 연구한 결과다. 마니아
적인 디지털 수용자에서부터 포비아적인 수용자에 이르기까
지,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는 수용자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박은희, 신국판, 380쪽, 22,000원, 200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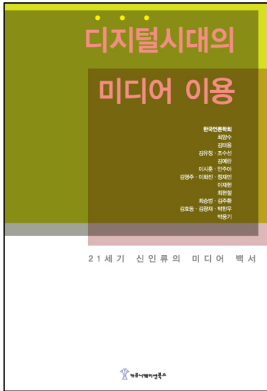


디지털 수용자

한국방송학회 수용자 분과에서 9명의 전문가들이 2년 동안 연
구한 결과를 엮은 책. 그간 국내에서 출간된 수용자 관련 서적
은 대부분 번역물이었고 국내 수용자들의 실제 수용행위를 분
석한 저술서는 드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다. 또한 새
롭게 전개되는 디지털 미

디어에 관련한 수용자 연구도 담고 있다.

이은미·김유정·박동숙·박창희·안정임·이수범·이흥철·전경란·황
용석, 신국판, 311쪽, 18,000원, 2003-11



디지털시대의 미디어 이용

인간의 선택으로 초래된 미디어의 흥망성쇠, 디지털과 아날로그 미디어의 경쟁과 공존 환경에서의 소비 양상, 사람들은 어느 미디어에서 얼마나 만족을 얻는지, 왜 사람마다 미디어 이용 방식이 다른가와 같은 다양한 질문에 새로운 분석틀로 적극 개입한다.

한국언론학회, 신국판, 319쪽, 23,000원, 2006-03



수용자 연구

기존의 수용자 연구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여 고찰한 연구서. 기존의 연구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했던 수용자 자체를 텍스트, 담론, 민속지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대중 문화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문화연구에서의 수용자 연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개념, 이론적인 설명 및 방법론에서의 나아갈 지침을 제시한다.

버지니아 나이팅게일, 박창희·김형곤, 신국판, 277쪽, 17,000원, 2001-01

총서교재

총서 교재는
강의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10가지로 콤팩트하게 정리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화, 저널리즘의
개념, 이론, 역사를 망라합니다.
주교재, 부교재, 읽기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해
강의를 알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상 환경의 팀워크

우리는 대부분 팀을 만들어 동료와 함께 일한다. 개인보다 팀으로 일할 때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조직에서 팀은 모든 업무의 중심 단위가 되었다. 팀은 정보 획득의 첨병이자 신속한 의사 결정의 주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집합체로서 작동한다. 테크놀로지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추동한다. 정보 기술과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협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최고의 파트너와 협업을 포기할 필요도 없어졌다. 가상 환경이 곧 현실이 된 세상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방식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가상 환경의 팀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상황과 팀이 만들어져 작동하기까지 직면할 팀워크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박준기·이세윤, 사륙판, 122쪽, 9800원, 2017-12

공영방송이 변화하는 사회와 미디어 환경에서 스스로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낡은 사회제도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의 방송사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인터넷이 지배하는 미디어 지형 안에서 유망의 공영방송들이 어떻게 재개념화를 시도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공영 서비스 미디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한 가치들을 논의했다. 거버넌스, 수신료 제도, 미디어 전략과 같은 실천적 과제들을 여러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큰 주제에 따라 정리했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수신료 납부자와 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진화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론

공공서비스 미디어

최선욱



경음미디어연구소

공공서비스 미디어

공영방송이 변화하는 사회와 미디어 환경에서 스스로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낡은 사회제도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의 방송사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인터넷이 지배하는 미디어 지형 안에서 유망의 공영방송들이 어떻게 재개념화를 시도했는가에 대해 출발하여 공공 서비스 미디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한 가치들을 논의했다. 거버넌스, 수신료 제도, 미디어 전략과 같은 실천적 과제들을 여러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큰 주제에 따라 정리했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수신료 납부자와 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진화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선욱, 사륙판, 124쪽, 9,800원, 2015-05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고 있다. 기만적인 표시·광고란 사실의 은폐, 축소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량유통물에서 표시된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그 의미 규정과 실제상업에서 배타적인 판매를 위하여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제1차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적정정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성립요건, 사실 은폐·축소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애매모호한 표현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전체적인 상이 기만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기만성과 거짓·과장, 표시·광고의 기만성과 부당비교·비방,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규제방법,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중요정보의 고시,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통합 광고 등을 소개한다.

기만적인 표시·광고
조재영



정음 나라이어인문소

기만적인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의 내용과 방법에서 ‘기만적’인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법률적 정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성립 요건, 사실 은폐·축소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애매모호한 표현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전체적 인상이 기만적인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기만성과 거짓·과장, 표시·광고의 기만성과 부당한 비교·비방,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규제 방법,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중요 정보의 고시, 기만적인 표시·광고와 통합 광고 등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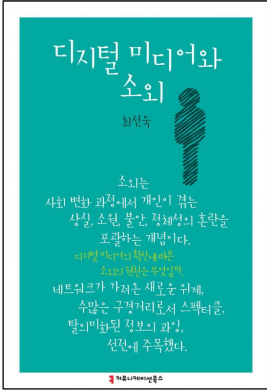
조재영, 사륙판, 160쪽, 9,800원, 2015-11



디지털 디바이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보안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환경의 도래로 디지털 디바이드 즉 정보격차가 다시 새로운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다.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고찰한다. 정보격차의 역사부터 유형, 구조, 효과는 물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전망 등을 망라해 기술 발달의 부정적 영향에 관심 있는 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사회학, 언론학, 행정학 등 정보통신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고민하는 연구자나 정책 관계자 등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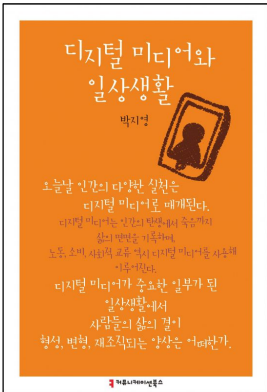
김봉섭, 사륙판, 138쪽, 9800원, 2016-11, 9800원, 2016-11



디지털 미디어와 소외 한울북

소외는 사회 변화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상실, 소원, 불안, 정체성의 혼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급속한 정보사회화와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공의 기술에 대해 주체가 아닌 객체화되는 경험을 낳게 했다. 소외의 발현이다. 이 같은 소외의 원천은 무엇일까. 네트워크가 가져온 새로운 위계, 수많은 구경거리로서 스펙터클, 탈의미화된 정보의 과잉, 선전에 주목했다.

최선욱, 사륙판, 106쪽, 9800원, 2016-11



디지털 미디어와 일상생활 한울북

셀피, 섹스팅 그리고 디지털 유물. 정보의 디지털화가 인간의 삶에 초래한 변화를 상징하는 키워드들이다. 오늘날 인간의 다양한 실존은 디지털 미디어로 매개된다. 디지털 미디어는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삶의 면면을 기록하며, 노동, 소비, 사회적 교류 역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해 이루어진다. 나아가 사공간에 대한 인간의 본연적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 미디어가 중요한 일부가 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삶의 결은 어떻게 형성, 변형, 재조직되는가. 그 양상을 살펴본다.

박지영, 사륙판, 120쪽, 9800원, 2016-10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최근 디지털 콘텐츠는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혁명으로 그 가치를 더욱더 인정받고 있다. 기존 유통 시장이 온라인 시장으로 대체되는 변혁과 맞물려 저작권 문제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송권 같은 새로운 권리가 등장하고 저작권 침해 사례도 자주 생기고 있다. 창작물의 형태와 유통 방식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 방법과 지식과 정보에 대해 자유로운 접근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다양한 현안을 알기 쉽게 풀었다.

하동철, 사륙판, 134쪽, 9,800원, 2014-04



러시아 언론 법제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질서 확립과 더불어 거대한 러시아연방국을 만들었다. 새로운 국가는 자국의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정치, 경제, 법률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한편 대중정보매체의 발달로 정보생태학의 변화에 따른 법적 기반이 필요했다. 러시아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새롭게 제도를 정비하면서 제4의 권력으로서 언론의 위상을 인정하고 변화된 언론 환경에서 필요한 법들을 만들었다. 특히 '2003년통신법'은 '2002~2010년 러시아 전자정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 선 러시아 언론을 규정하는 언론 관련 기본법들을 설명한다.

선봉희, 사륙판, 130쪽, 9,800원, 2015-11



루머

루머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나 조직은 없다. 루머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인데도 때로는 진실인 양 우리의 태도와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며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기도 한다. 공식적인 정보 채널이 없던 인류 역사의 초기, 구전으로 전해지던 루머는 유일한 정보였을지 모른다. 루머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집단적 의미 찾기에서 생기고 공유된다. 이제 사람들은 온라인 혹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로 자리를 옮겼다. 누구나 쉽게 정보를 생산 가공 배분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아졌다. 루머도 많아졌고 영향력도 더 강해졌다. 우리가 알아야 할 루머의 정체와 루머를 만들고 믿고 소비하는 인간의 동기와 이유, 루머의 통제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이혜규, 사륙판, 130쪽, 9,800원, 2015-05

미디어 모니터링은 미디어를 깊고 넓게 그리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해 세상을 직접 바라본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이나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미디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소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이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의심해야 한다. 세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 미디어를 꼼꼼하게, 조금은 빼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서민사연구소 대표이사

미디어 모니터링

김동욱



서민사연구소

미디어 모니터링

미디어 모니터링은 미디어를 깊고 넓게 그리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해 세상을 직접 바라본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이나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거의 모두가 미디어에서 말한 것들이다. 오늘날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미디어를 의심해야 한다. 세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 미디어를 꼼꼼하게, 조금은 빼박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임동욱, 사륙판, 120쪽, 9,800원, 2015-05

‘미디어와 생태학’ 둘 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단어가 아니다. 그런데 둘 단어를 결합한 ‘미디어 생태학’은 한낱 낱말이고 그의 의미역도 넓지 않다. ‘생태학’은 생물학의 한 분야인 ‘미디어 환경’이나 ‘문화’와 관련이 있어, 또 대체로 양쪽을 공부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둘 다를 공부하는 것으로 자리잡은 학과를 뜻하는지, 그리고 ‘생태학’이 본래 생물학의 한 분야인 ‘생태학’과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직 제대로 정리된 학과와 학과도 아니고, 정교한 이론체계를 가진 학과도 아니다. ‘미디어 생태학’은 미디어와 생태학의 이차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기보다는 미디어 생태학의 독자적인 틀에 대한 한 가지의 상상력을 소개하려 한다.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미디어 생태학자들 중 소개된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이 인류의 어떤 것과 관련시키므로 무엇을 심문 할 수 있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책 읽는 나그네의 인문학

미디어 생태이론
이동후



책 읽는 나그네의 인문학

미디어 생태이론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일종의 생태적 환경으로 주목했던 일련의 학자들의 지적 전통을 가리킨다. 미디어 생태학은 우리의 경험 및 인지 양식을 구조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주목하며 인간과 미디어 혹은 미디어와 미디어의 “연관과 관계를 극대화시키는” 지적 전통이나 시각이다.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을 보여 준 학자들과 이들의 사상,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관통하는 주요 개념 등을 중심으로 미디어 생태학 시각을 제시한다.

이동후, 사륙판, 130쪽, 9800원, 2013-02

미디어 윤리는 언론이 언론다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일 뿐만 아니라 언론 자체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미디어 윤리는 대개 진실성, 정확, 사회정의, 인간적 존엄의 자유 그리고 인간 존엄의 요소로 통합되고 지적한다. 이러한 언론 윤리는 왜 지켜야 하는지, 언론인 윤리의 비윤리적 행위라면 어떤 것들인지, 디지털 언론이 되기 위해 언론인과 언론인이 지켜야 할 윤리는 무엇인지 등을 다루고자 한다. 실제 언론과 언론인들은 대중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언론 권력의 남용을 경시하거나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디어 개혁 시대를 맞아 특화 관심되고 있는 미디어 윤리에 대해 설명한다.

책 읽는 나그네의 인문학

미디어 윤리
이재진



책 읽는 나그네의 인문학

미디어 윤리

미디어 윤리는 왜 지켜져야 하는가? 미디어와 미디어 종사자들은 다른 어떤 조직이나 단체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윤리를 지킬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미디어는 권력의 남용을 감시,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디어 윤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인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디어 윤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주요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진, 사륙판, 120쪽, 9800원, 2013-0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결로 약 30여년간 유지되어 왔던 코바코의 방송 광고 독점 대행 체제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미디어어렵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체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미디어어렵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어렵의 목적과 기능, 코바코 독점의 장·단점,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 등을 살펴본다.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 제한, 허가, 재허가 기준, 판매 대행에 따른 보상 및 수수료 지급 기준, 전파료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중소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대행자 지정과 결합 판매,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금지 행위도 살펴본다.

미디어어렵
김재철



법률스승연구소

미디어어렵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약 30여 년간 유지되어 왔던 코바코의 방송 광고 독점 대행 체제가 무너지고 본격적인 미디어어렵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체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미디어어렵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어렵의 목적과 기능, 코바코 독점의 장·단점,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 등을 살펴본다.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 제한, 허가, 재허가 기준, 판매 대행에 따른 보상 및 수수료 지급 기준, 전파료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중소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판매대행자 지정과 결합 판매,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금지 행위도 살펴본다.

김재철, 사륙판, 146쪽, 9,800원, 2015-11

미디어혁명시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는 미디어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미디어법은 어릴 게 공부해야 할까, 미디어법은 너무 어렵고 지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디어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강하고 역동적인 학문 분야이다. 이러한 미디어법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출발점과 체계적인 조망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디어법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정재진 언론포럼 대표가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하여, 현재 미디어법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요 쟁점과 최근 추세를 밝히고 있는 「언론매체산업 진흥법」에 대한 제도, 판결, 권리를 정리하였다.

미디어법
이재진



법률스승연구소

미디어법

미디어 빅뱅 시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법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미디어 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핵심 개념, 제도, 판결, 권리를 제시했다.

이재진, 사륙판, 132쪽, 9800원, 2013-02



미디어사회학 보급판 2판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는 현상은 이른바 미디어사회학이라는 이론 영역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디어와 사회의 복합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미디어사회학은 다양한 미디어 유형과 콘텐츠 환경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효과를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미디어가 사회를 반영하는 다양한 형식을 복합적으로 인식한다. 이 책은 복잡해지는 미디어 현실의 핵심 쟁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명하는 사회과학적 인식의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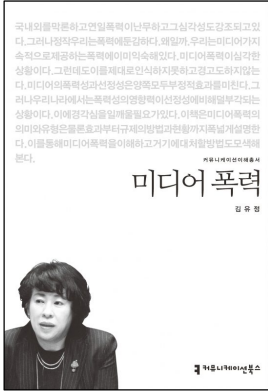
서명준, 사륙판, 108쪽, 9800원, 2014-04



미디어와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것인지 언론을 보호할 것인지 해결하는 과정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논의들이다. 이 책은 미디어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각종 판례와 법률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 언론은 명예훼손 책임을 지게 되는지, 또 언론 보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명예훼손이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등을 간략하게 보여 준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의 주요 명예훼손 관련 판례들과 비교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는 미디어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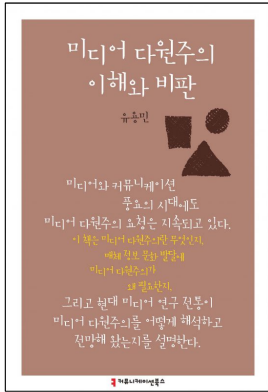
박아란, 사륙판, 106쪽, 9,800원, 2015-05



미디어 폭력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일 폭력이 난무하고 그 심각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창작우리는 폭력에 둔감하다. 왜일까, 우리는 미디어가 지극적으로 제공하는 폭력에 이미 익숙해 있다. 미디어의 폭력성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참고도 하지 않는다. 미디어의 폭력성과 선정성 양면 모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되는 폭력성의 영향력이 선정성에서 비롯된다는 상황이다. 이에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미디어 폭력의 의미와 유형은 물론 효과부터 규제 방법과 현황까지 폭넓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 폭력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할 방법도 모색해 본다.

김유정, 사륙판, 120쪽,



미디어 다원주의 이해와 비판 반값

미디어 다원주의는 이념, 사상, 신념,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차이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정치적 욕구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스며든 결과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풍요의 시대에도 미디어 다원주의의 요청은 지속되고 있다. 미디어 다원주의란 무엇인지, 민주적 매체 정보 문화 발달에 미디어 다원주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대 미디어 연구 전통이 미디어 다원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전망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유용민, 사륙판, 130쪽, 9800원, 2016-10



민기 힘든 저작권 이야기

예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 세계적인 인기를 끈 노래 <강남스타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1000억 원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수 사이에게 돌아간 저작권 수입은 3600만 원에 불과했다. 2004년 출판된 『구름빵』이라는 그림책은 8개 국어로 번역되어 40만 부 이상 팔렸다.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공연으로 4400억 원의 가치가 추가로 창출되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름빵』을 창작한 작가가 받은 저작권 수입은 2000만 원도 되지 않았다. 모두 저작권과 관련된다. 이 책은 10가지 저작권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을 통해 문화와 예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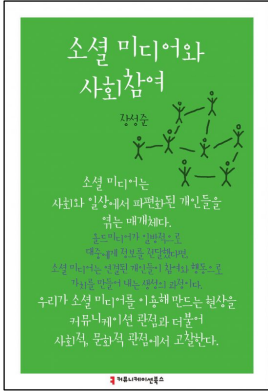
하동철, 사륙판, 126쪽, 9,800원, 2015-05



선거와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하게 규율한다. 여러 조항에서 정당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지지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권자 국민에게 부여된 최상의 헌법적 가치다.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 검증이 부실하면 후보자의 공직 적격을 판단할 수 없고, 부적격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충분한 정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는 무책임한 폭로일 뿐이며 유권자 선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이익향량에 대해 살펴본다.

김경호, 사륙판, 106쪽, 9,800원, 2015-05, 9,800원,
2015-11



소셜 미디어와 사회참여 반 고흐

2010~2011년 중동 지역에 들불처럼 번졌던 ‘아랍의봄’을 기억하는가. 소셜 미디어의 힘을 세계에 환기시킨 대표적인 사례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는 사회와 일상 속에서 파편화된 개인들을 엮는 매개체로, 아랍의봄 같은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올드미디어가 일방적으로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면, 소셜 미디어는 연결된 개인들이 참여와 행동으로 가치를 만들어 내는 생성의 과정이다. 우리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만드는 현상을 커뮤니케이션 관점과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장성준, 사륙판, 114쪽, 9800원, 2016-11

온라인대학교육에대한논의가다양해지고있다. 학습자중심의학업 만족도를향상시키고,성취도를제고할수있으며, 대학경영차원에서비용절감효과를이끌어올수있다는기대심리가반영된결과다. 대학구조개혁의바람이거센현재, 교육적효과와경제적효과 모두를잡을수있다고여겨지고있다. 그러나온라인대학교육이 무엇인지정확히알고있는대학은한참지않다. OCW와MOOC의개념, 블렌디드러닝과플립러닝이무엇인지, 어떻게해야교육의효과를극대화할수있을지에대한전천후의상황이다. 온라인대학 교육의개념과유형별특성과함께성공전략을정리했다.

서문대학교인재개발부

온라인 대학 교육

이정기



서문대학교인재개발부

온라인 대학교육

온라인 대학 교육에 대한 논의가 다양해지고 있다. 학습자들의 학업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성취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대학 경영 차원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대학 구조 개혁의 바람이 거센 현재, 교육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 모두를 잡을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대학 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대학은 많지 않다. OCW와 MOOC의 개념,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 러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대학 교육의 개념과 유형별 특성과 함께 성공 전략을 정리했다.

이정기, 사륙판, 123쪽, 9,800원, 2015-11



위대한 디자이너의 철학과 영향력

100여 년 전 사회에서는 쓰임새를 지닌 대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디자인이라 했다. 현재 디자인은 그 범위를 확장하여 광범한 대상을 다룬다. 따라서 단순한 문장에 디자인 개념을 모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자이너는 작은 바늘도 디자인 하고 커다란 건물과 도시도 디자인한다. 하찮게 볼 수도 있는 바늘 디자인은 인간의 의생활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온 반면 수 없이 복제된 건축물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감흥도 주지 못한다. 이제 디자인은 그 대상보다 결과가 야기하는 혁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디자이너들은 자신만의 철학과 디자인으로 사회와 문화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영식, 사륙판, 126쪽, 9800원, 2017-12



원소스멀티유스와 저작권 침해

한류는 단순히 문화 콘텐츠의 확산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한국 상품의 판매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 상품도 국가나 기업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공한 콘텐츠는 거의 예외 없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표절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원소스멀티유스가 활발해지면서 일어나는 저작권 분쟁은 한류의 확산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의 의욕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장르 간 전환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사건들을 살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최승재, 사륙판, 134쪽, 9,800원, 2015-11



음악 저작권

음악 저작권에 관한 내용 중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가 많은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음악 저작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 권리, 권리자의 보호 방안, 실행 절차, 침해 내용 등을 법률 지식 없는 독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하동철, 사륙판, 128쪽, 9800원, 2013-02

음악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콘텐츠이다. 한국인의 일상 생활에 어날수록 음악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콘텐츠 역할을 한다. 단기에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전사하는 과정에서 신디사이저와 컴퓨터 등으로 샘플링 기법 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제작 환경의 변화, 전 세계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무의식적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음악가들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 책은 우리 법원의 음악 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를 중요 사건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다.

최승재



최승재

법률사무소 최승재

음악저작권 침해

음악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콘텐츠의 하나다. 한국인의 정서를 잘 녹여 낸 우리 음악들은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콘텐츠 역할을 한다. 단기에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하는 과정에서 신디사이저와 컴퓨터 등으로 샘플링 기법 등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제작 환경의 변화, 전 세계의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이용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무의식적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음악가들의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 책은 우리 법원의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를 중요 사건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다.

최승재, 사륙판, 146쪽, 9,800원, 2015-11



이러닝과 저작권

이러닝은 기존의 교수 학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물리적, 시간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교양, 전문, 업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작권이라는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이용 허락이 이러닝이나 원격교육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에 도움이 되고자,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법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윤명, 사륙판, 114쪽, 9800원, 2013-02



인터넷 자율규제와 법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라는 규제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규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제 자율규제도 법제도와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법제도와 결합한 자율규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동규제의 형태를 가진다.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구현은 가장 세련되고 진전된 방식이다.

황승흠, 사륙판, 122쪽, 9800원, 2014-04

인터넷은 정보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은 중요 과제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제한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제한과 함께 보장된다. 인터넷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음란, ISP의 책임, 저작권, 검열, 정치적 표현 등 10가지의 실례를 통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고 제한되는지 살펴본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박아란



커뮤니케이션매체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온라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영역과 그 한계를 미디어법을 통해 조망해 본다. 인터넷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 침해, 음란, ISP의 책임, 저작권, 검열, 정치적 표현 등 10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면서 법과 표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박아란, 사륙판, 104쪽, 9800원, 2014-04

우리 헌법은 문화가 원리를 표방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문화 표현과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2013년에는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어 문화의 진흥과 보호를 목적으로 문화진흥공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진흥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저작권자의 입법자는 이를 자율적 창작활동으로 사유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는 철학을 훼손하고 있다. 문화법 제정 이전 저작권법 제도로 이해되던 역사, 보호 기간, 권리 남용, 공정 이용, 오픈소스, 이용자권을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 왔던 부분을 살펴본다.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김윤명



커뮤니케이션매체에서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저작권법은 대표적인 문화 법제로 무엇보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정한 이용도 함께 도모하여, 이들의 균형을 통해 융성한 문화 창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저작권자나 입법자는 이용자를 잠재적 범법자로서 위치 지워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철학을 훼손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 법제인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역사, 보호 기간, 권리 남용, 공정 이용, 오픈 소스, 이용자권 등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부분을 살펴 널리 알리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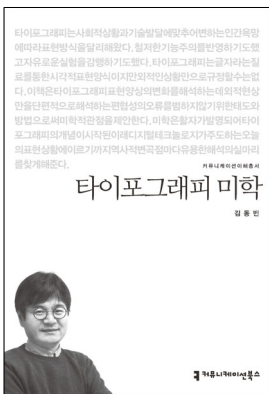
김윤명, 사륙판, 128쪽, 9800원, 2014-04



출판 저작권

출판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표하는 행위라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는 출판과 저작권에 관한 주요개념 10가지를 다룬다. 이 개념들은 출판과 저작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아이টে일 뿐만 아니라, 저서를 출판하려는 사람 또는 출판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들이다.

김기태, 사륙판, 120쪽, 9800원, 2013-02



타이포그래피 미학

타이포그래피는 사회적 상황과 기술 발달에 맞추어 변하는 인간 욕망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해 왔다. 철저한 기능주의를 반영하기도 했고 자유로운 실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라는 질료를 통한 시각적 표현 양식이지만 외적인 상황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 책은 타이포그래피 표현 양식의 변화를 해석하는 데 외적 현상만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편협성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태도와 방법으로써 미학적 관점을 제안한다. 미학은 활자가 발명되어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이 시작된 이래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주도하는 오늘의 표현 상황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변곡점마다 유용한 해석의 실마리를 찾게 해 준다.

김동빈, 사륙판, 124쪽, 9,800원, 2015-05



퍼블리시티권의 이해

스타의 이름과 사진이 가진 고객 흡입력은 연예·스포츠 산업이 만든 새로운 유형의 재화다. 경제적 가치를 유통시킬 때 시장의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손해배상과 권리의 양도가 가능해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한류 시장을 개척하고 한류 시장의 개척자와 스타 사이에 이윤을 공정하게 나누는 데 쓰이는 효율적인 법적 도구다. 이 책은 광고, 게임, 화보집, 모창 가수, 모델 소설 등에 대하여 스타가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과 배경을 쉽게 설명했다. 또한 초상권,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를 뚜렷하게 밝혔다. 독자들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정책과 입법, 판결의 쟁점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박준우, 사륙판, 112쪽, 9,800원, 2015-05

포털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다량인허가주요소, 정보통신망법제과전자우편,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일상에서 포털은 인터넷과 동일시된다. 우리법상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OSP등으로 칭해진다. 포털서비스는 또한 다양한법률에 적용된다. 다양한법률은 정치적인경우도 있었지만, 실상현상이었거나있었다는방증이다. 그러나포털이법적책임을 부담하는것은아니다. 보통합의를통해서문제해결하지만때로는소송을통해서해결하기도한다. 포털서비스에대한판례를살펴본다. 적어도판례는법률전문가에의해서객관화되었을것으로해되기때문이다.

서민이민영·김윤명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

김윤명 · 이민영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

포털이란 무슨 의미일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 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되나, 일상에서 포털은 인터넷과 동일시된다. 우리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사업자, OSP 등으로 칭해진다. 포털 서비스는 또한 다양한 법률에 적용된다. 다양한 법률은 정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실상 현상이 있거나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포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합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지만 때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한다. 포털 서비스에 대해 판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적어도 판례는 법률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화 되었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김윤명·이민영, 사륙판, 146쪽, 9,800원, 2015-11



플루서, 미디어 현상학 보급판 한 권

인류문화사를 코드의 역사로 바꾸어 쓴 빌렘 플루서의 미디어 현상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한다. 미디어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살핀다. 먼저 플루서가 ‘코뮤니콜로지’라고 부르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다룬 대화와 담론, 정보, 상징과 코드, 그리고 미디어의 개념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 상징체계로서 제시한 코드 중 오늘날 지배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적 형상, 특히 디지털 코드가 탄생시킨 코드화된 세계와 텔레매틱 사회의 본질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청각 및 시각 코드에서 예술로 승화된 음악과 디자인을 조명한다.

김성재, 사륙판, 130쪽, 9800원, 2013-02



한국 광고의 역사

역사책이란 흥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허물며 역사도 짧고 배울 것도 없을 듯한 한국 광고의 역사라 하면 코웃음이 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국 광고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언론 특히 신문의 발전 과정을 익히 알게 된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 '광고'라는 말이 도입된 뒤 지난 130여년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이 책은 10개 토막(시대)으로 엮였으며 쉬운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바쁘면 한 토막씩 잠깐잠깐 읽을 수 있게 짜여 있다. 아마도 한국의 지난 근대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받을 것이다.

신인섭·서범석, 사륙판, 146쪽, 9,800원, 2015-11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판례 10선

인터넷은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는 ‘의사 표현의 매개체’다. 따라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여기서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를 모았다. 인터넷과 표현 자유의 관계, 그 의미와 한계 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는 것들이다. 또한 법률이나 규제 정책과 아울러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내용을 알려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관련 법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원칙 및 기준들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관련 법제도가 현실을 어떻게 규율하고 현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다.

황성기, 사륙판, 136쪽,

다른 과목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광고

공간 커뮤니케이션

PR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경제, 경영, 정책

미디어론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방송, 영상

연구방법론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저널리즘

소통, 스피치, 글쓰기, 토론

미디어교육

한국어

대중문화

가이드를 다 보았는데도 마음에 드는 교재가 없다고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리딩패킷 교재'를 이용하세요.

꼭 필요한 부분만 골라 나만의 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딩패킷 만들기](#)

[튜토리얼 영상 보기](#)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교재 문의

전정욱 주간 02-3700-1273, jwjuhn@commbooks.com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5-11 (성북동1가 35-38)

T.02-7474-001 F.02-736-5047 commbooks.com